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신규취업자 6개월 연속 50만 명이상 증가세
- 이 슈 : (경제) 집 살 여력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산업)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 노후생활

- 테 마 :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세 심 록 : 격탁양청(激濁揚淸)
- 북 리 뷰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 동향

○ 신규취업자 6개월 연속 50만 명이상 증가세

-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는 50대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58.1만 명 늘어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세 기록

- 고용지표 동향 : 4월중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8.1만 명 늘어 2013년 4월의 34.5만 명 보다 큰 폭 증가. 고용률은 60.6%로 2007년 6월 이래 최고치 기록. 취업자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의 증가로 실업률도 3.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산업별 : 도·소매업의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18.2만 명 늘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 견인. 그 밖에 보건·복지(14만 명), 숙박·음식(12.1만 명), 제조업(9.6만 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 연령별 : 50대 취업자는 27.3만 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20.6만 명,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4만 명, 40대 취업자는 6.8만 명 각각 증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6만 명 감소

○ 소비 심리 위축 가능

-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수출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 내수 : 소비는 3월말 신차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 통신사 영업규제 등으로 1/4분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수출 : 4월 중 수출은 대부분 지역과 품목에서 증가세를 시현하며 전년동월비 9.0%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유지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 역시 44.6억 달러로 높은 수준 지속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5/7	5/16
실물 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	-	-		
	제조업생산(%)	0.7	-1.6	0.1	1.8	0.7	-4.5	4.4	2.8		
	소비자물가(%)	2.2	1.3	1.4	1.1	1.1	1.1	1.0	1.3	-	
	실업률(%)	3.2	3.1	3.0	2.8	4.0	3.5	4.5	3.9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32.9	45.0	73.5		
금융 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9	2.85	2.87	2.88	2.85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64.8	1,071.3	1,070.9	1,036.9	1,025.3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48.2	1,937.3	1,952.4	1,978.7	1,973.7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5/7~5/16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¹⁾

○ 주택경기 부진과 잠재적 주택수요자 추계

주택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침체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주택수요자, 즉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 및 특징

(정의 및 추계)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란 보유중인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대출로 실거래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2013년 기준 568.7만 가구로 총 가구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무주택가구는 143.9만 가구, 유주택가구는 424.8만 가구로 추계되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가 2012~2013년에 9.0% 증가(521.8만→568.7만)해 나머지 가구가 -1.7% 감소(1,266.6만→1,245.4만)한 것과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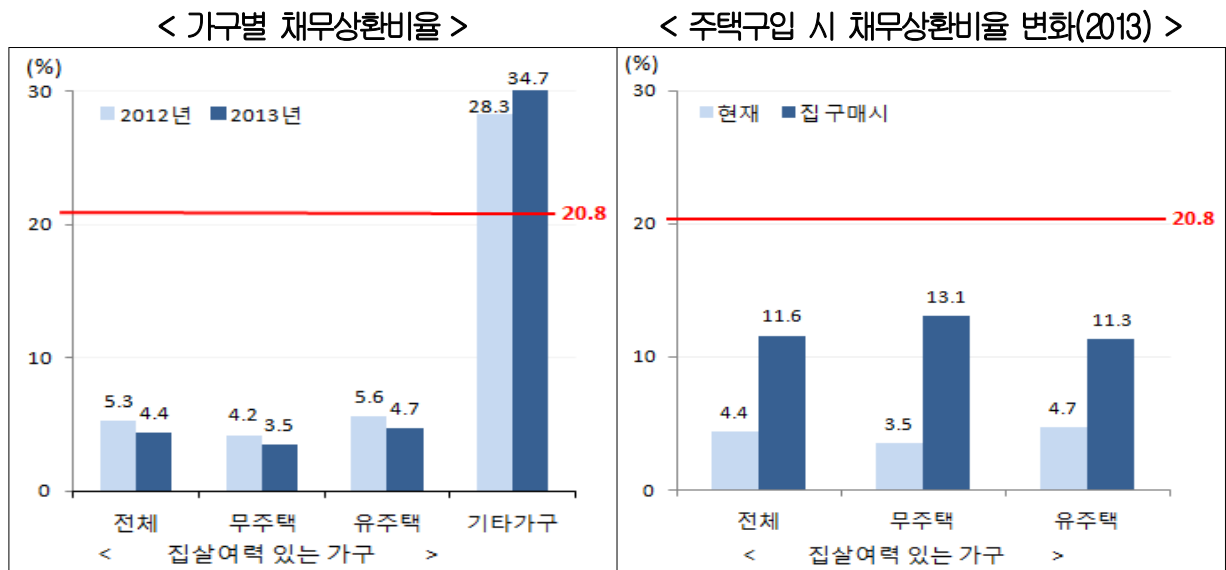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모습)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비수도권에서 자가 혹은 전세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중고소득층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에 65.5% 분포하고 있으며, 자가 거주자는 60.9%, 전세 거주자는 28.2%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혼인가구가 84.7%를 차지하며, 중산층은 52.0%, 고소득층은 44.8%로 나타났다.

구 분	특 징	분 포
지역	비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65.5%
주거형태	자가, 전세 > 보증금 월세, 월세, 기타	자가 60.9%, 전세 28.2%
혼인상태	혼인(부부동거) > 미혼, 사별, 이혼	혼인 84.7%
소득수준	중산층, 고소득층 > 저소득층	중산층 · 고소득층 96.8%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14-18호 (2014. 05. 02.) 에서 발췌 요약.

(주택구입 전과 후의 재무구조 변화)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2013년에 4.4%로 기타가구의 34.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들이 집을 구입할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4.4%에서 11.6%로 상승하지만,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의 채무상환비율인 20.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무주택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3.5%에서 13.1%로, 유주택가구는 4.7%에서 11.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추산.

주 : 우측 그림은 '집 살 여력 있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의 채무상환비율 변화임.

○ 시사점

집 살 여력이 있는 568.7만 가구 중 55.8%는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주택매매시장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집 살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목적의 주택 구입 장려, 상속증여 목적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하여 주택 구입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hri.co.kr)

□ 이슈 : (산업)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²⁾
 - 최근 원/달러 환율 5%내외 고평가

○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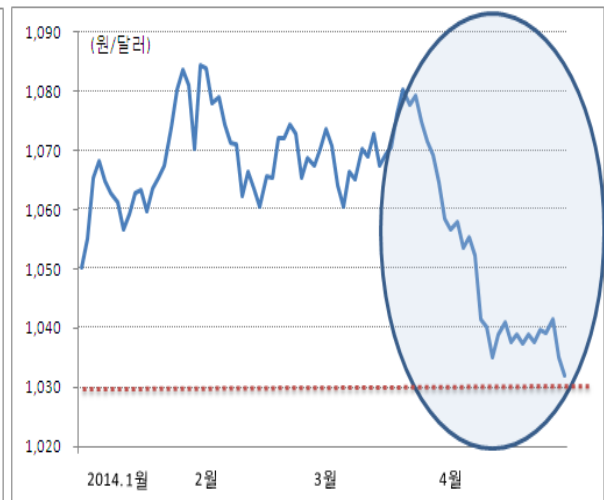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로 떨어지며 한 달 사이 4%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2014년 4월 29일 1,031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며 3월말 이후부터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IMF는 원/달러 환율이 균형 수준보다 8%가량 저평가된 수준으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달러 환율의 균형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균형환율을 실질실효환율과 행태균형환율 2가지 방법으로 추정해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에서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달러 월평균 증가기준.

< 원/달러 환율의 최근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달러 일일 증가기준.

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14-17호 (2014. 04. 29) 에서 발췌 요약.

○ 원/달러 균형환율 추정

먼저, 실질실효환율은 구매력평가설에 의거한 방법으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환율을 교역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해서 추정한다. 교역국 사이에서 물가의 상대적 변동 및 명목 환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의 변동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실제 환율에 반영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을 바탕으로 장기균형 수준을 살펴본 결과, 2014년 3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4.8%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행태균형환율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경제변수를 통해 환율의 행태를 설명하는 축약 관계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균형환율을 추정하는 것이다. 정부부채 비율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이용하고 교역조건비율, 교역재 대비 비교역재비율, 순해외자산비율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실질환율의 움직임을 추정했다. 이처럼 행태균형환율을 바탕으로 장기균형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원/달러 환율은 장기균형대비 2014년 1/4분기 기준 6.1%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및 시사점

IMF에서 원화가 8%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실질실효환율과 행태균형환율로 장기균형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근 5%내외 고평가(원/달러 균형환율은 1,122~1,134원으로 추정)되어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들어 환율 하락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균형수준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외환수급변동과 단기자본유출입 상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정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율 운용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환율이 균형환율에서 장기간 크게 벗어날 경우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며 조정되고 이는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기업차원에서도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개척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민정 연구위원 (2072-6212, kimmj@hri.co.kr)

□ 테마 :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 요약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 정부는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통해 효과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개인마다 노후라고 인식되는 시점과 노후시작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차이가 있고 거시적 경제변화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축적된 자산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건강, 여가를 포함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반영한 현재의 노후준비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8.7점,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영역이 60.5점, 건강영역이 75.0점, 재무영역이 47.1점, 그리고 여가영역이 46.1점으로 나타나 매우 부족한 상황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그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고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던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기관과 관련된 항목들을 법으로 규정함

향후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됨

□ 노후준비 수준과 문제점

○ 노후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 노후라고 인식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차이

- '제4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적으로 64.6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자일수록 노후의 시작 연령이 높게 나타남

- 노후시작의 계기가 되는 사건에 대해 중·고령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부터라고 61.6%가 응답했으며,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22.5%로 그 다음을 나타냈고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라는 응답이 7.9%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후준비의 정도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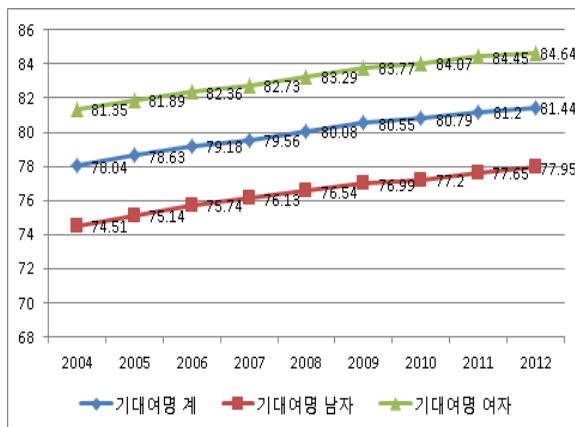
-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뿐 만아니라 거시적 경제변화에 따라 노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
- 노후에 필요한 월간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가 부부기준 2005년에 119.4만원, 172.2만원에서 2007년에는 경제상태가 안정되면서 노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123.6만원, 179.6만원으로 점차 높아졌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상태가 악화되면서 2009년에는 124.5만원, 178.2만원으로 다소 주춤하더니 2011년에는 본격적인 불황으로 124.1만원, 176.0만원으로 점차 줄어들

○ 불확실성과 노후준비

- 기대수명에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의 증가와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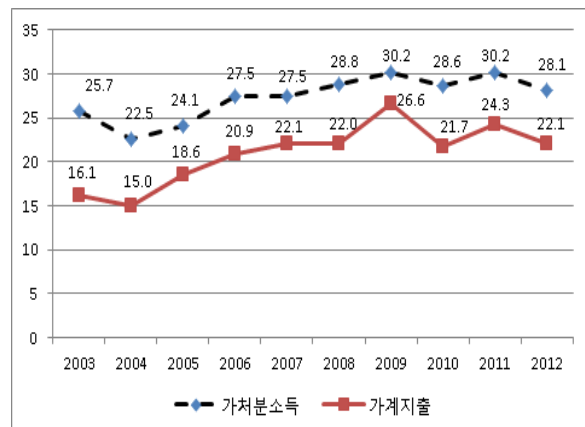
-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4년 남자가 74.51세에서 2012년 77.95세로 3.44세가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4년 81.35세에서 2012년 84.64세로 3.29세가 증가하여 전체 기대수명은 2004년 78.04세에서 2012년 81.44세로 3.4세가 증가
-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높은 경제적 빈곤발생
-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절대빈곤율이 2003년 25.7%에서 2011년에도 30.2%로 높은 절대적 빈곤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지출에 대한 절대빈곤율 역시 2003년 16.1%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 24.3%를 나타내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나타냄

< 기대수명추이 >



자료: 통계청, 생명표.

<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 >



자료: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자살율

- 공적연금의 미성숙과 사적연금의 비활성화로 높은 노인빈곤율
- IMF 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명예퇴직제도 등의 조기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자발적 은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충분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함
- 그 결과 우리나라 55~64세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1.8%, 2010년 62.7%, 그리고 20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건강상태가 떨어지는 후기 고령자의 경우 건강상태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자살은 4위를 차지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
- 『201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0~80세의 자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인구 10만명 당 80세 이상의 자살율은 116.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84.4명, 60대는 50.1명으로 80대 이상 노인의 자살율이 20대 자살율의 5배에 달하고 있음
-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건강악화가 32.6%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30.8% 그리고 부부, 자녀, 친구 갈등 및 단절이 15.6% 그리고 외로움이 10.2%로 나타남

○ **현재의 노후준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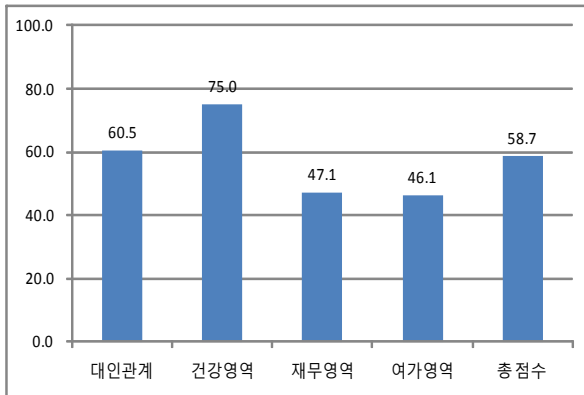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님

- 버트런드 러셀에 따르면, “짐승은 몸이 성하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 행복경제학에서도 한 나라가 소득의 증가를 통해 평균적인 행복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축적된 자산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건강, 여가를 포함

-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없는 노후준비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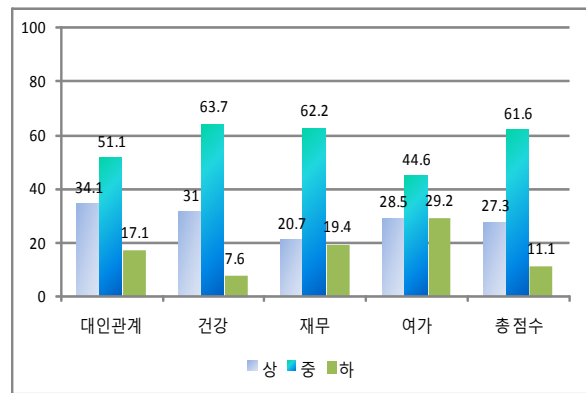
- 노후준비 총점수는 100점 만점에 58.7점,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영역이 60.5점, 건강영역이 75.0점, 재무영역이 47.1점, 그리고 여가영역이 46.1점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로 준비상태가 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재무(20.7%)가 가장 낮고 여가(28.5%), 건강(31.0%), 그리고 대인관계(34.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이 너무 낮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모든 영역에서 중에 해당되는 비율이 대략 44.6%~63.7%로 이들의 경우 조금만 더 노후설계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개선될 소지가 있음

< 영역별 노후준비도 >



자료: 이소정,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발전방향』, 2013.6.25

<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



자료: 이소정,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발전방향』, 2013.6.25

□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대응전략 분석

○ 가치재로서의 노후설계지원서비스

-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 정부의 노후준비개입 필요
- 가치재(merit goods)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
- 노후설계를 무조건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 둔다면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언제나 노후준비를 뒤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많은 사회적 시스템의 효율화와 함께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개념

-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의미

- 노후설계지원법(안)은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전국민의 노후설계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주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
-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던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법안을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

- '노후설계'와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차이

- '노후설계'란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은퇴 후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관하여 미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
-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설계에 대한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내용

- 국민이 적절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기관과 관련된 항목들을 법으로 규정

- 노후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규정
- 노후준비지표의 제공 및 보급과 노후준비기준선의 마련하고 노후설계서비스의 유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규정
- 노후설계 서비스의 4대분야로서 재무설계, 건강설계, 여가설계, 대인관계설계 등의 정의를 담고 있음

<노후설계지원법(안) 개요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노후설계서비스 실태조사
제3장 노후설계서비스	▶노후설계지원사업 ▶노후준비지표 및 노후준비 기본선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노후설계서비스의 분야
제4장 제공기관	▶노후설계위원회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평가
제5장 제공인력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인력 ▶제공인력 결격사유	▶제공인력의 금지행위 ▶보수교육의 실시
제6장 정보의 제공 등	▶노후설계서비스 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연금종합정보시스템구축

자료: 이소정,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 10

□ 노후설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첫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 따른 제한된 서비스

- 기관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무영역과 함께 비재무영역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

- 생명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의 민간기업에서는 주로 재무영역에 한정되어 보험가입자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 대기업 중심의 민간기업에서도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전직지원서비스 형태로 퇴직 예정자 또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 반면, 종교기관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가, 오락 등의 비재무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연령대에 따라 관심영역이 다르고 발생하는 생애 사건들이 차이(20대는 학업과 취업, 30대는 취업과 결혼 및 출산, 40대는 자녀 교육과 자산축적, 50대는 은퇴, 그리고 60대는 자녀의 결혼이 중요 사건)
- 개인의 소득수준과 선호의 차이에 따라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다양
- 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는 획일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획일적 상담서비스**

-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공단처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요자가 꾸준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서비스제공이 일회성에 머물게 되고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노후설계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생애주기에 맞게 상담과 교육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넷째, 낮은 공간적·경제적 접근성**

- **생명보험회사의 방문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곤란**
-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노인인력공단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특히 지방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 공간적으로 접근도가 떨어지며,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 공간적·경제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 개선점 및 시사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 볼 수 있음

- 첫째,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제공주체가 다르더라도 재무와 비재무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
- 셋째,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더 많은 노후설계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노후설계서비스

- 노후설계지원법(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설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겠지만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왜 정부가 개인의 노후준비까지 신경 쓰느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짐
 -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임
 - 둘째, 노후설계를 무조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 둔다면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를 더 높게 쳐주는 높은 시간선호율에 따라 언제나 노후준비를 뒤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많은 사회적 시스템의 효율화와 함께 개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 향후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재호(02-380-8362, ksud71@kihasa.re.kr)

□ 세심록(洗心錄)

○ 격탁양청(激濁揚淸) : 흐린 물을 몰아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인다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는 올해의 활동목표를 '격탁양청(激濁揚淸)'으로 정했다. 격탁양청은 흐린 물(濁流)을 몰아내고 맑은 물(揚淸)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떨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당서(唐書)의 왕규전(王珪傳)에서 나온 사자성어로 당 태종(太宗)이 중인인 왕규와 나눈 대화에 등장한다.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방현령, 이정, 온언박, 대주, 위징과 왕규가 함께 국정을 관장하고 있었다. 태종이 왕규에게 물었다. “경은 분별력에 정통하고, 담론(談論)을 좋아하니, 방현령 등을 품평해 보시오. 그로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는 현명함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오.” 왕규가 대답했다. “열심히 나라를 받들고, 아는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신이 방현령에 미치지 못합니다. 재능과 문무를 겸비하여 밖으로는 장수로, 안으로는 재상의 역할을 수행함에는 신이 이정에 미치지 못합니다. 군주에게 진언하고 명령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신이 온언박에 미치지 못합니다. 번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사무를 반드시 시행함에는 신이 대주에 미치지 못하며, 간언을 하며 마음을 쓰고, 군주가 요순(堯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게 여기는 것에는 신이 위징만 못합니다. 그러나 방탕하여 흐려진 것을 몰아내고, 청정한 기운을 들어오게 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에서는 신이 여러 신하들보다 나으니, 이 또한 하나의 장점입니다.”

2013년 반(反)부패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했으며, OECD 34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전경련에서 '격탁양청'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인은 스스로를 낮춰 남의 뒤에 머물기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살린다.

- 노자, 도덕경(道德經)

□ 북리뷰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³⁾

짐 로저스는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의 बै리올 칼리지(Balliol College)에서 정치·경제·철학을 전공하였고, 1969년에 조지 소로스과 퀴텀펀드를 설립하여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 그 후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을 가르쳤고, 세계적인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 주요 저서로는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상품시장에 투자하라 등이 있음

○ 주요 내용

-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

-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감. 영국은 금융위기와 잘못된 정치 탓에 패권을 상실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
- 이제 패권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음. 미국도 똑같은 이유로 패권을 상실하고 있지만,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

- 중국, 통일 한국, 미얀마의 부상

- (흥륭한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중국) 중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면서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 (통일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 북쪽의 값싸고 숙련된 노동자와 천연자원이 남쪽의 자본, 기술, 경영 능력과 결합하면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
- (미얀마의 변화) 미얀마는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신흥국으로 도약

- 미래 경제는 농업이 주도

- 농촌 인력 부족, 농부의 고령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최근 몇 년 동안 식량 소비량이 생산량을 추월하면서 식량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미래에는 금융보다 농업이 훨씬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될 것임

-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려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음
-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도 어리석고 무능한 정치인들로부터 비롯됨

- 세계 경제는 창조적 파괴 시스템이다

- (새로운 것이 일어나서 낡은 것을 대체) 한편에서는 국가, 기업, 가족, 개인들이 융성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기업, 가족, 개인들이 쇠퇴
- 따라서 인위적인 행위보다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

3) 짐 로저스 지음, 이건 옮김,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 이레미디어, 2014.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